



문서번호: 25-02-노동-0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취재요청서]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2025. 2. 25.(화)

전송매수: 총 2매

[취재요청서]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세종호텔 앞 지하철도 입구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세종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이 떨어지던 시점에서, 당시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 희망

퇴직 등을 실시한 뒤 희망퇴직을 거부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후자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해고노동자들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4.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3년 넘게 세종호텔 앞에서 농성하며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는 세종호텔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개 노동법률단체는 세종호텔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농성장 앞

- [진행 순서] 사회: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1: 김성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발언2: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희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이현아 간사

2025년 2월 25일

5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